

‘다시 뛰는 전주의 미래’ 시민과 공유

자광,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행사장서 개최

〔취재기자(회장 정은수)는 오는 11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를 열고 전주의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한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내 행사장에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공 비전 페스타는 ‘다시 뛰는 전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전주의 산업 유산과 미래 도시 비전을 잇는 출발점이자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의 기공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옛 대한방직 부지는 수십 년간 전주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전주의 정체성과 도시 구조를 미래형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거·관광·문화·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전주는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공 비전페스타’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시민과 함께 하는 상징적 행사



〔취재기자)는 오는 11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페스타’를 열고 전주의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한다.

다. 자광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정·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비전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약 2,000명 규모로 진행되며, 주요 내·외빈과 전주 시민이 함께 참석한다. 전체 행사는 조종현 아나운서와 김민정 아나운서가 공동 사회를 맡아 안정감 있고 품격 있는 진

은 영상이 상영돼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소통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비전 토크쇼는 일반적인 사업 설명을 넘어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공감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전북 전주, 지금을 밟고 내일을 약속하다’를 주제로 전주의 정체성과 변화, 복합개발사업이 지역 경제와 시민 일상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진다.

행사의 마지막은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 축하 콘서트와 불꽃놀이로 마무리된다. 콘서트에서는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이 축하 공연을 펼칠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펼쳐지는 전북 최대의 불꽃축제는 전주의 미래 비전과 도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 한다.

정은수 회장은 “이번 기공 비전페스타는 단순한 축제 행사가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며 “자광이 책임 있는 민간 주체로서 지역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가상융합산업 핵심 거점 도약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혁신센터 운영사업 최종 선정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지역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전북특별자치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진흥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4년 8월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기반으로 가상융합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센터와 혁신센터 모집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진흥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 MICE 복합단지’ 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공간(이하 G-Town)’과 연계해 AI·가상융합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등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혁신센터는 기술 실증과 R&D 연계, 사업화 지원, 투자 및 판로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 기업 성장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전주시의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조춘, 여,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집적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기반을 축적해 왔다”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및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농생명 혁신 원년’ 선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주년 비전 실행 본격화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이 2026년 새해를 ‘농생명 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 거점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5일 ‘2026년 신년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선포한 설립 20주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실증·산업화를 연계하는 실행 중심의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규제혁신과 글로벌시장 진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4대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생명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연구 성과가 실제 현장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지역 농생명 산업

혁신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원은 AI 기반 스마트팜 데모실실을 활용에 데이터 중심의 연구·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재배·생육·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함으로써 전주시 디지털 농생명 산업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전주미나리를 비롯한 지역 특화 자원의 재배 환경을 표준화하고, 품질 균일성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반 농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식품 개발과 데이터 기반 기능성 평가를 연계해, 푸드테크 기반 기능성식품·소재 개발 역량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농생명 산업의 융합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전주농산자원의 건강기능성 규명을 통해 지역 특산 자원의 생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5일 ‘2026년 신년브리핑’을 가졌다.

리활성 기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식의약·기능성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농생명 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확장하는 등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의 규제 혁신과 지역 농생명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미생물 고사체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기능성식품 기업이 새로운 원료와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실

증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한다.

농생명·바이오소재의 효능·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대체시험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연구윤리 기준과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재배, 원료, 제품화, 수출로 이어지는 연계 모델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방향성 모색 포럼 열려

전주시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5일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전주지역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 인구·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청

년을 인구정책의 핵심 주체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강연과 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를 주제로 한 기초강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채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